

상용차도 전기차 열풍...기아 봉고EV 잘 나갑니다

올 1~11월 광주 생산 9897대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80% 증가
 국비보조금 1600만원
 지자체 800만원에 취득세 혜택
 디젤에 비해 연료비 절반 수준
 주차비·통행료 할인 등으로 인기

전기차(EV) 열풍이 상용차에도 몰아치고 있다. 친환경이라는 장점 외에도 경제성과 편의성이 더해지면서 전기화물차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27일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에 따르면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하는 봉고EV 트럭(사진)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총 8만5500대가 생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만8997대보다 8.2% 증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봉고EV는 올해 11월까지 누계 생산량이 9897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95대에 비해 80.1%가 증가하면서 봉고EV 트럭

생산 증가세를 견인하는 분위기다. 기아의 봉고EV는 지난해 1월 도심 운송에 최적화된 친환경 전기 트럭으로 출시된 뒤 경제성과 편의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우선 올해 기존 정부의 화물 전기차 보조금은 일반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의 2배 수준인 1600만원으로, 800만원 상당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자체별 상이)과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받을 수 있는 데다, 디젤 차량에 비해 연료비용 역시 절반 수준에 불과해 경제성이 뛰어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심배송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봉고EV의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봉고EV는 완충시 211km를 주행할 수 있고,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등판 능력이 우수하다. 100kW급 충전기로 충전을 할 경우 54분이면 배터리 급속 충전이 완료된다. 이밖에 적재 중량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행 가능 거리를 안내하는 첨단기술이 적용됐고, 제동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제동 시스템도 갖췄다.



기아는 봉고EV를 출시하면서 기존 차량 대비 강화된 편의사항을 선보이기도 했다. 전동식 파워스티어링(R-MDPS), 버튼 시동 시스템, 전자식 파킹브레이크(EPB, 오토홀드 포함)가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됐다. 첨단 안전사항도 대폭 강화됐다. 전방 차량 또는 보행자와 충돌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필요 시 브레이크 작동을 보조하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와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낮은 적재고와 적재함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평바닥 옵션을 통해 우수한 적재 편의성

까지 갖춘 것도 봉고EV의 장점이다. 또 올해 2월에는 봉고EV 초장축 경캡 기반으로 ▲내장탑차(저상·표준·플러스) ▲파워게이트 ▲왕바디 등 3종류의 특장차 판매도 개시했다. 봉고EV 특장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등판능력이 우수하며 완충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봉고EV는 도심 운송에 최적화된 전기 트럭으로 도시환경에 적합한 주행거리와 충전시간, 소형 상용EV 특화 신기술을 보유해 편의성을 갖췄다"며 "구매 보조금과 합리적인 유지비 등 기존 디젤차 대비 높아진 경제성과 전동화를 기반으로 한 정속성으로 소형 트럭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봉고트럭은 2004년 1월 봉고트럭이라는 이름으로 기아 오토랜드 광주 3공장에서 생산된 이후 자영업자와 농민, 서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재산목록 1호차 든든한 버팀목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11월 현재까지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된 봉고EV 트럭(봉고EV 포함)의 누적생산량은 1059만9000여대로 올 연말까지 106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올 생산 목표량 달성 무난

'캐스퍼' 1만2000대 생산 눈앞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난 16일 생산 1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연말까지 올해 목표인 1만2000대 생산 달성을 앞두고 있다. <사진> 27일 GGM에 따르면 지난 9월15일 '캐스퍼' 신차 양산을 시작한 이후 이달 16일 누적 생산 1만56대를 기록했다. GGM이 주 2~3회 특근 등을 하며 현재 하루 200여대 안팎의 캐스퍼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생산 목표로 잡았던 1만2000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양산 돌입 3개월여 만에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최고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주효했다고 GGM 측은 분석했다. 우선 GGM은 철저한 품질 검사를 거친 차량만을

출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5단계의 품질 검사 과정을 거치지만, GGM은 실제 7번의 검사 과정을 거치는 등 자체적으로 까다로운 검사를 하고 있다. 캐스퍼의 인기로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생산량보다 품질을 우선하는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노력으로 캐스퍼의 생산 합격률은 3개월 만에 90%를 넘기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이 도달했다는 평가다. GGM이 생산·출하한 차량 중 하자 발생이 단 한건도 없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박광태 GGM 대표이사는 "양산 시작 3개월 만에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해 올 생산 목표인 1만2000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모든 임직원의 노력과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 덕분이다. 앞으로도 최고 품질과 노사 상생을 정착시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고객 전용 충전 앱
 '메르세데스-벤츠 차지'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고객 전용 충전 애플리케이션 '메르세데스-벤츠 차지'(Mercedes-Benz Charge)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메르세데스-벤츠 차지'는 벤츠의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EV) 고객 전용 충전 앱이다. 해당 앱을 통해 ▲전국 공용 전기차 충전소 위치 ▲운영 시간 ▲충전소 별 충전 사업자 ▲충전기 타입 ▲충전기 상태(충전 중 여부, 충전기 고장 정보 등) 같은 다양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제공사인 '차지비'(ChargeEV)가 운영하는 충전소를 선택하면 원하는 시간에 충전기를 예약할 수 있으며, 충전 멤버십 카드인 메르세데스 미 차지(Mercedes me Charge)를 해당 앱에 등록하면 충전 비용까지 한번에 결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벤츠 순수 전기차 고객은 해당 앱을 통해 1대 1 개인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EQ 스마트 코칭'(EQ Smart Coaching)에 대한 안내와 진행 상황 확인을 비롯해 각종 충전 관련 문의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신규 EQ 충전소 1곳을 오픈하고 기존 충전소 2곳을 새 단장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 일반·기술직 경력·신입사원 74명 공개 채용 내달 6일까지 원서 접수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일반·기술직 경력 및 신입사원 74명을 공개 채용한다. 27일 GGM에 따르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기술직 사원과 품질 안정화를 위한 일반직 사원 선발을 위해 ▲상생 안전 ▲경영지원 ▲생산 ▲생산 품질 15개 분야 경력 및 신입사원 총 74명을 공개 경쟁을 통해 채용한다. 이번 채용은 올해 5번째(5차) 공개채용으로 일반직은 과정(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 대리(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 사원(대졸 이상)이다. 기술직은 신입사원으로 각 부서 직무별로 모집한다. 보훈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채용 전문업체를 통해 이날부터 내년 1월6일까지 11일간 접수받으며, 모든 지원자는 지원서 제출 시점부터 1월7일까지 인공지능(AI) 역량 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채용은 AI 역량 검사와 서류전형, 건강검진,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

를 선정, 발표한다. 최종합격자는 2월 말 입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채용도 신체적 조건이나 혼인 여부, 재산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된다. 채용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과 AI 역량 검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와 평가 기준 적용으로 객관성을 확보해 구직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GGM의 설명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GGM 관계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고 품질과 상생의 정착으로 목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공개채용을 진행하게 됐다"며 "AI 역량 검사와 채용 전문기관 위탁 등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통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젊은이들에게 취업의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GM 공개채용 관련 문의는 채용사이트(ggm.recruiter.co.kr)를 통해 가능하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